



## 얼음 깨기

##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 교회행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평생 180개국 이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역은 수억 명에게 영향을 주었고, 대통령과 왕들이 그의 조언을 구할 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보내신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의 평생의 신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 권력의 초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받은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영원한 집처럼 불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10월

6~9일	추석 연휴
12~15일	기을 사경회
18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개강
19일	사역박람회 (3주간)
22일	필그림/ 벤쿠버한인합창단 찬양예배
23일/25일	1차 세례 교육
25일	신중년 야유회
30일/11월1일	2차 세례교육

## 11월

1일	문답식/굿윌센터 야유회
2일	세례식
9일	성찬식/더가족세미나 개강
16일	추수감사주일
19일	마하나임/트리니티 중창단
29일	더비기닝 선교학교 수료식

## 경배 찬양

## 나를 지으신 주님

## 선교

## [박문수 선교사]

1. 나를 지으신 주님 내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2.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후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아버라 부를때 그가 들으시죠

1. 올꼬이 예수원 운영과 학생들의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2. 교역자 신학교육과 교회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3. 예수 밀림 축제가 마을마다 지속되기를 위하여
4. 선교사들과 교역자들의 영력, 지력, 체력을 위하여

## 소식

## 1. 세례 / 입교 / 학습

11월 2일(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청장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3(목) 저녁 7시 30분 2회차: 10/30(목) 저녁 7시 30분  
[청소년: 세례/입교/학습] 1회차: 10/25(토) 오후3시 2회차: 11/1(토) 오후 3시

[유아 세례] 교육&문답 11/1(토) 오후 3시 \*문답식은 11월 1일(토) 오후5시부터 세례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2. 주차부터 예배

주변 건물 주차장은 되도록 이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조금 걷더라도 주변 공영 주차장 이용을 권면합니다. 물론 교회 주변 성도님들께서는 걸어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존 스테판 파이퍼(John Stephen Piper)-

(KHKV 베드로전서 1:1-2)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이들, 곧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임시 체류자들에게. 여러분의 택하심은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 각자를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아니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뜻인데, 그렇기에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파트를 넓히거나 요트를 사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데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 1\_ 하나님의 택하심, 임시 체류자

베드로는 거듭난 자를 ‘택하심 받은 자’, 즉 엘레토이스라 부르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며, 헬라어로 파레피데모스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임시 체류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수백 개의 신이 있었고, 종교와 정치, 경제가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신전도, 신상도, 제사장도, 제물의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기에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로 불리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받고, 비즈니스에서도 쫓겨났으며, 심지어 식인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여겼기에, 그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나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문제로 불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데,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 2\_ 왜 ‘정체성’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정체성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파벳만 외우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처럼,

기초적인 신앙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함께 자라갈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자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돋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버틸 수 없듯,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는 식의 신앙은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단순한 교회 출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이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 \*결론 — “택하심 받은 나그네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임시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두 정체성을 자각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택하심 받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야말로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불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할까요?

◆**삶의 결단:**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 서기를 소망합니다.